제 1165 호 1991년 11월24일 창간 2014년 5 월 11 일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4년 표어 §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막10:45)

†행 동 지 침†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어버이주일 메시지

약속 있는 첫 계명

세월호가 침몰하는 중 죽음을 직감한 한 아빠는 아내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냅니다. “수협통장에 저축해 놓은 돈 있으니 그걸로 애들 등록금 해요.” 기울어진 배에 차가운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급박한 순간에 한 아빠가 생각한 것은 아이들의 교육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중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며, 사도 바울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당연한 일을 자녀들이 성실히 이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잘 되는 복과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부모님은 누구십니까? 그분들이 돌아가셨을지도, 혹은 한 분만 남아 계실지도, 혹은 두 분 다 살아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모님은 결코 우리 곁에 오래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합니다. 마음껏 나중에 후회함이 없도록 효도해야 합니다. 큰 선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함께 있어 드리고, 안아 드리고, 용돈 드리며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것만 해도 그분들은 충분히 행복하십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모든 서울교회 성도님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약속된 복을 마음껏 누리며, 각 가정을 통해 작은 낙원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담임목사 박노철

서울교회 은빛천양대

오늘은 어버이 주일

주일예배 시작 전 – 카네이션 달아드려
찬양예배 시 – 교육1국 특별찬양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교회학교 학생들이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부모님께 사랑의 마음을 담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린다.

또한 찬양예배 시에는 교육1국이 특별찬양의 시간을 갖는다. 유아부(지휘 : 한문영 집사, 반주 : 신아령 선생)는 '나는야 주의 어린이'외 2곡을, 유치부(지휘 : 이혜진 선생)는 성경암송과 '뽀뽀해 주세요'외 2곡을, 유년부 엔젤스(지휘 : 조성경 선생, 김윤진 선생)는 ' Jesus' love is Very Wonderful' 외 1곡을, 초등부 글로리아(지휘 : 이예원 선생)는 '야곱의 축복' 외 1곡을, 그리고 유·초등부 연합찬양대(지휘 : 박재원 선생, 반주 : 유수진 선생, 양혜선 선생)은 '우리에겐' 외 2곡을 찬양드린다. 많은 성도들의 참석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13대 장로 · 14대 집사 · 13대 권사 선거

–5월18일(주) 찬양예배 후 공동의회에서–

지난주 찬양예배 후 열린 특별제직회에서 공동의회에 추천할 제13대 장로 후보 19명이 선출되었다.(아래 명단 참조) 아울러 다음 주 찬양예배 후 제13대 장로 10명을 선출하고, 당회에서 추천한 제14대 집사후보 59명, 제13대 권사후보 85명에 대한 찬반을 묻는 공동의회가 개최된다.

후보들의 사진과 신앙경력 등이 게재된 명단은오늘 순례자에 삽지로 배부된다.

한편 장로는 공동의회 투표인수의 2/3, 집사와 권사는 후보에 대한 가부를 묻는 투표로 진행하여 1/2 이상 반대가 나온 이들을 제외하고 선출된다. 본 교회의 18세 이상 등록된 세례교인(세례, 입교, 개종)은 모두 공동의회에 참가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함께 기도로 준비하면서 서울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신실한 일꾼들이 선출되도록 협력하기 바란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1. 최형열

2. 김금준

3. 최차순

4. 주동재

5. 진교남

6. 서경학

7. 김광륭

8. 홍일성

9. 김규태

10. 차도훈

11. 은기장

12. 최규초

13. 원용규

14. 김성준

15. 윤성남

16. 이영조

17. 이준호

18. 김광욱

19. 차영도

제 54회 정기노회

5월 13일(화) 오전 9시 예인교회

제54회 정기노회가 5월 13일(화) 오전 9시 예인교회에서 열린다.

우리교회는 목사 회원으로 박노철, 서명철, 장석남, 황광, 유문건, 김안성, 임규현 목사, 장로총대로 오정수, 노문환, 이영기, 서문석, 박정선, 최학인, 신용식, 오광환, 최광성, 오치열 장로가 참여한다.

몽골 네그뚜게르(제일교회) 직분자 서울교회 방문

5월14일(수) 오후1시 802호

몽골 네그뚜게르(제일교회) 직분자 20 여명이 5월 14일(수) 오후 1시 우리교회를 방문하여 강의를 듣고 수요 2부 예배를 함께 드린다.

몽골 네그뚜게르(제일교회)는 설립 23년이 된 몽골에서 영향력이 있는 교회로 2013년부터 새벽기도를 꾸준히 하면서 교회의 직분자들이 더욱 영적으로 다져지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더욱 말씀과 기도로 뿌리 깊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교회, 거룩하고 청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교회, 몽골 땅의 구원의 빛이 되고 사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세계로 나가는 교회로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교회이다.

이에 복음을 전달해준 나라이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한국교회의 영성과 한국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배워 교회공동체와 개인에게 주신 소명을 다시 한 번 다지고 한국에 있는 몽골인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장로회신학대학교 협력교회와 함께 드리는 예배

5월23일(금) 오전 10:30~13:00

서울교회는 소속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신학교인 장로회신학대학교를 방문하여 미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이끌어갈 신학생들과 함께 [협력교회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

이 예배는 우리 교회가 주관하며, 박노철 담임목사의 설교, 오정수 장로의 기도, 노문환 장로의 성경봉독,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 등 순서를 담당한다. 예배 후에는 전 교직원/학생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격려의 시간을 갖는다.

이 귀한 시간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개인/단체별로 사무국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란다(5월 14일까지).

- 일시: 2014년 5월 23일(금) 오전 10:30~13:00
- 장소: 장로회신학대학교
- 교회출발 : 오전 9:50

가정의 달 특집 – 세상을 바꾼 여인들

반응의 선택, 그리고 기적

가정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사교육의 일 번지인 대치동 엄마들이 믿음 가운데 새로이 결단한다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취지 아래 진행된 "고등부 엄마들과 함께 떠나는 7주간의 신약성경 여행: 복음서의 엄마들과 여성들" 성경공부 모임(세. 바. 맘 – 세상을 바꾸는 엄마들)에서 강의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5월 한 달 4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

천세종 목사(고등부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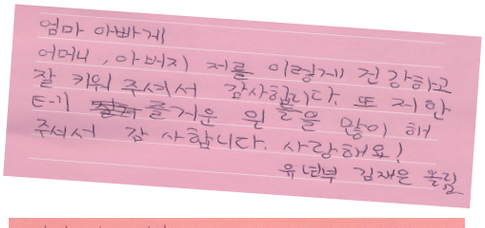
마태복음 15장에서 우리는 한 엄마를 만납니다. 신중하게 반응을 선택함으로 귀신들린 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지혜로운 엄마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 여인을 '가나안 여자'로만 소개할 뿐, 다른 배경을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7장 30절에 나타나는 '침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클리네라는 단어를 통해 이 여인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가졌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여인이 선택하는 반응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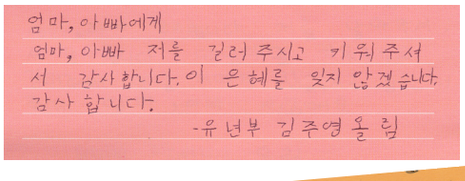
시돈과 두로 지방을 방문하신 젊은 선생이신 예수님. 본문의 엄마는 용기를 내어 그의 앞에 조심스럽게 나섭니다. 그리고 머리를 깊이 숙이며 도움을 청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의 딸이 귀신에게 붙잡혀 심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요청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무반응"입니다. 철저히 외면하십니다. 반응을 보인 쪽은 오히려 제자들입니다. "주님! 저 여인이 시끄럽게 하는데, 보내 버리시지요." 제자들의 말은 여인의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한 술 더 뜹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대접을 받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비수처럼 여인의 가슴에 꽂히고, 시퍼런 멍 자국을 남깁니다.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며, 도도함을 잃지 않고 살아왔던 여인은 너무 당혹스러워집니다.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이 일을 계속 해야 할까?' 순간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귀신으로 고통 받고 있는 딸의 얼굴이 떠오르고,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젊은 선생님 앞으로 나아가 땅에 얼굴을 대고 넙죽 엎드립니다. "주님! 저를 꼭 도와주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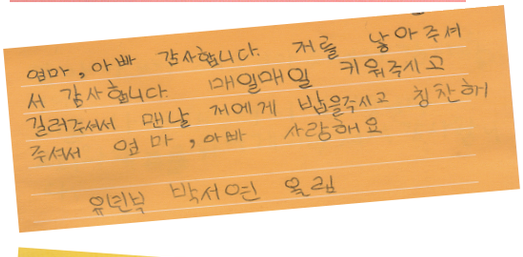
예수님께서 인자하신 얼굴로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것을 독자들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대답은 이미 상처받은 여인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는 면도날처럼 날카롭습니다. 벌렁거리는 심장을 오른손으로 눌러 진정시키며, 여인은 자신의 반응을 차분히 선택합니다. "옳습니다. 주님!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잠시 멈칫하시던 주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져납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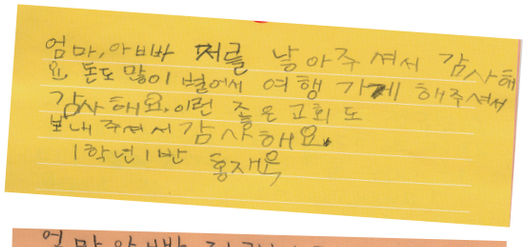
참된 믿음은 우리가 삶의 매 순간에 선택하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집에 있는 자녀들의 현재 모습은 자녀들의 행동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가 선택한 반응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 또한 우리들이 선택할 반응에 의해 많은 부분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고, 수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그런 자극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귀신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엄마가 선택한 반응은 이것입니다. "옳습니다. 주님!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우리는 어떤 반응을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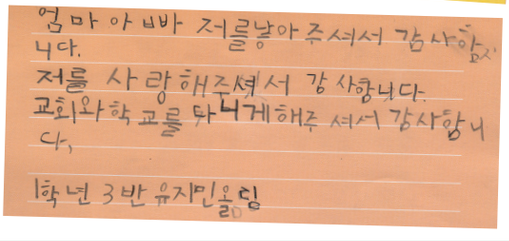
엄마, 아빠 사랑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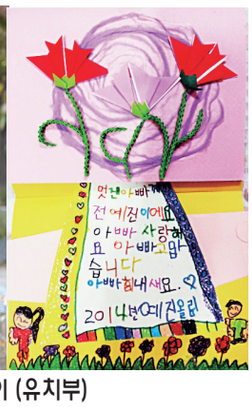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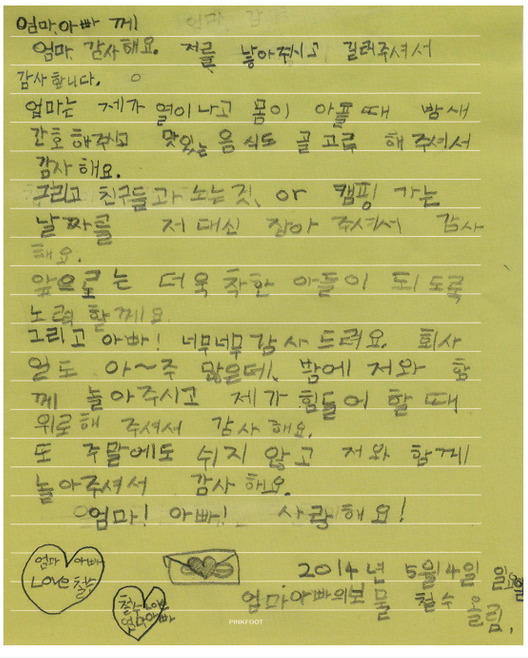




이수아 어린이 (유치부)



손예진 어린이 (유치부)



선교편지 – 살리닷

살리닷 가정에 복음의 봄이...

이은준 선교사(카자흐스탄)

살리닷이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온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나 이곳 카작 광야에는 살구꽃이 만발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살리닷 가정에도 복음의 봄이 오는듯 합니다.

쿠아느스(살리닷 아빠)는 한국에 가기 전엔 우리를 만나도 딸을 치료해야겠다는 생각만 가득하였고 우리를 만나는 목적도 오직 딸의 치료를 위한 만남이었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것이 종교적으로는 큰 부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갔다 온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믿음의 형제로 사랑의 형제로 맞이하는 것이 역력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찬양을 부르며 누가 뭐라 해도 서울교회 성도님들이 믿는 사랑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길 외에 다른 길로 가지 않겠다고 결단하였고, 주일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결단과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기도해주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제 살리닷 가정을 방문하는 일이 성도가정을 심방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한번 붙들면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여 주님의 제자로 육성하는 미르교회 그물 안에 살리닷 가정이 들어온 것입니다.

살리닷이 카작에 들어온 후 아이만(살리닷의 엄마)은 남편이 기독교인으로 변한 것에 많이 놀랐습니다. 형제자매들과 친척들의 핍박이 두렵기도 했을 터이고 그래서 이것이 부부간의 갈등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심방을 가면 성경을 펴놓고 찬송을 부르며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조금씩 주님의 사랑에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살리닷은 아직도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학교 교사가 매일 살리닷을 방문하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살리닷은 율동과 찬양을 좋아하고 우리 미르교회 아이들과 잘 어울립니다. 자기 모습에 연연하지 않고 당당하게 친구들과 같이 찬양하고 춤을 춥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사라는 마을(군 소재지)에서 최초의 주일학교 어린이가 되었습니다.

살리닷의 가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살자고 격려합니다.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리닷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실 것이라고 말씀으로 도전해줍니다.

살리닷 가정을 시작으로 하여 그 마을에 더 많은 무슬림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동 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2일(월) 국가재창조 국민운동준비모임에 참석한다. 14일(수) 한국로잔위 임시총회에 참석한다. 15일(목)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설교한다. 17일(토) 제5회 종교개혁신학학술대회 개회예배에서 설교를 한다.

■ 사임 : 우리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던 한상은 목사가 담임목사로 청빙되어 본 교회를 사임하였다.

■ 연주회: 예오름 색소폰 앙상블 정기연주회(예술감독 임범창 집사) 5/17(토) 오후7시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 득남 : 4교구 유남근 집사 정은영 집사(5.1)
(유승순 장로 소선자 권사의 장남 가정,
정기동 집사 전배호 권사의 삼녀 가정)

■ 득녀 : 2교구 한대석 집사 구진영집사(5.5)
(구정두 집사 윤복순 권사장녀 가정)

■ 주일식당봉사 : 모세선교회 루디아전도회(5.11)
이삭선교회 도르가전도회(5.18)

■ 금주의 식사 : 교회제공

① ② ③

지난 5월 8일(목) 종강한 경로대학은 지난 한 학기 동안 반별 수업에서 진행한 작품들을 전시하였다. 29학기는 9월에 개강할 예정이다.

① 성경필사반 ② 손뜨개작품반 ③ 점토공예작품반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들이 항상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효를 다함으로 약속하신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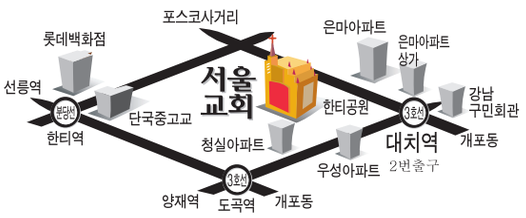
2. 항존직 일꾼을 세우는 선거 가운데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온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계기가 되도록

3. 세월호 참사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수습이 되어 유가족들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개혁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Ⅰ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Ⅰ,Ⅱ,Ⅳ 층
	Ⅱ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Ⅲ 부 예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젊은이 예배	오후 1시 30분	
수 요 예 배	Ⅰ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Ⅰ,Ⅲ 층
	Ⅱ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Ⅱ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